

#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서 대학생 지역혁신아이디어 발표회

무주군은 24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대학생 지역혁신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무주군이 주관하고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최,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과 전주미식가협회가 후원한 이 자리는 우석대학교의 '음식관광지역혁신방안 연구 프로젝트'와 연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군에 따르면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무주를 직접 찾아 지역특색과 자원 등을 직접 조사했으며 무주음식관광을 위해 상품화 가치가 있는 과제를 발굴·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무대에 오른 과제는 <무주스러운 죽>과 <무주 3색 빵>, <무주(武酒)> 그리고 <무주(舞酒)>, <달리셔스 무주> 등 4가지다.

첫 번째 주제 <무주스러운 죽>은 기존의 어죽을 중심으로 호두팔죽 등을 상품화 하자는 것으로, 겨울스키시즌에 먹는 호두팔죽은 무주 특

산물인 호두를 결집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무주의 3색 빵>은 호두와 머루포도, 사과를 소재로 한 무주빵을 제안한 것으로 무주군의 대표 특산물로 만든 빵이 황성, 안홍, 경주, 통영, 제주 등 다른 지역의 특산 빵과 떡에 버금가는 무주빵 탄생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무주(武酒) 그리고 무주(舞酒)>는 무주의 술을 상품화하는 아이디어로 태권도인의 술 무주(武酒)와 스키레저인의 술 무주(舞酒) 개발에 관한 제안이 이색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달리셔스 무주>는 무주음식관광지도 개발 아이디어로 무주의 맛을 알고 즐기는데 필요한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을 담은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가 무주의 음식문화를 일으키고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도약대가 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무주의 맛, 무주 맛 집 투어가 무주관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경쟁력을 붙여넣는 기회를 무주가 꼭 잡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황인홍 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전주미식가협회 박수진 회장 등을 비롯한 무주군 관광 및 외식업 종사자 등 1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이 특강을 진행, 참석자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발표회 참가 학생들은 "음식관광지역혁신방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무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을 자세히 알게 된 기회를 갖게 돼 보람있었다"며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무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무주음식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바둑협회 주관하는 제1회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 '성황'

### 22일부터 이틀간 전국서 600여명 기량 겨뤄

진안군 바둑협회(회장 최규영)가 주관하는 제1회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가 첫 회지만 전국에서 6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진안을 찾아 마이산을 배경으로 열린 경쟁을 펼쳤다.

이틀간의 열전 끝에 ▲서준우(전국초등최강자) ▲이승규(전국초등유단자A) ▲주니어(박상준) ▲김희정(시니어) ▲고우준(전국초등유단자부B) ▲김호(전북초등유단자부) ▲박찬용(전북초등고학년부) ▲윤지원(전북초등중학년부) ▲지의찬(전북초등저학년부) ▲홍지성(전북초등방과후 고학년부) ▲박지성(전북초등방과후저학년부) ▲노송 기우희(전북3인단체전)가 초대 대회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바둑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진안군과 전라북도 바둑인들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 열렸다.

최규영 회장은 "초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차년도에는 대회수준을 높여 보다 많은 바둑인들이 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선수들은 "마이산은 세계적으로 가장 기가 센 곳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바둑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에만 바둑과 배구, 배드민턴 등 크고 작은 3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어 생활 스포츠 매카로 자리잡고 있다. 진안군의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청원조화... '신뢰받는 행정 운영' 다짐

### 민선7기 1차년도 성과·2차년도 비전 당부

장수군은 2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영수 군수와 신달호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조화를 열고 신뢰받는 행정 운영을 다짐했다.

장 군수는 민선7기 1차년도 성과 및 반성, 2차 년도에 추진해야 할 비전에 대해 당부했다.

장 군수는 이날 훈시를 통해 "언제나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군민들

이 믿고 의지하는 장수군, 군민들이 지키는 장수군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며 "지역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 추진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 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청원조화에서는 또 기관표창

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 한국의 혁신대상 지방혁신부문 대상,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우수기관, 제32회 세계금연의 날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18년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도지사표창을 수여했다.

친절공무원에는 일자리경제과 신태식, 민원과 강복기, 문화체육관광과 채석진, 의료지원과 최승희, 천천면 한은희 직원이 수상했다.

/장수=고판호기자

## 국무조정실, 진안고원시장 찾아 청년물 관계자 의견청취

진안군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진안고원시장을 방문하여 청년물 건립 관계자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진안군,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안고원시장상인회 등 청년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고원시장 청년물 조성사업단장의 추진상황 설명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물 사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통시장 청년물 조성사업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2018년 청년물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총사업비 1억4400만원을 투자해 오는 11월까지 10개의 청년점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이승민 과장은 "대부분

의 청년물 사업이 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인구 2만8000여명의 진안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도하는 청년물이 잘 된다면 전국 군 단위 소형 청년물 사업이 확산될 것이다"며 진안고원시장 청년물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영하 시장상권과장은 "진안군민의 특성을 살린 점포 하나가 성공하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며 "청년물이 바람을 일으키자 진안고원시장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감자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 행정지원과·건설교통과 직원 30여명 원좌산마을 농가 방문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과 행정지원과, 건설교통과 직원 30여 명은 24일 성수면 원좌산마을 농가를 방문해 감자 수확과 선별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는 장마 시작 전 적기에 감자를 수확해야 하는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직원들은 이날 일상의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농가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는 "무더운 날씨에도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 한시를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해석 면장은 "작은 힘이나마 농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 부모 양성평등·성교육 진행

무주군은 24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무주군수 황인홍, 민간위원장 이강춘)가 주관하는 지역 학부모를 대상, 양성평등·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 관련 에피소드나 궁금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성교육 전문가이자 세계여행 전문가 노미경 강사를 초빙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노미경 강사는 150여 개국 이상을 여행한 경험에서 얻은 해외의 성교육 사례와 체계를 안내하고 우리나라 성교육 발전방향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읍에 사는 양모(42)씨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질문이 많아지는 때가 있는데 성과 관련해서는 뭐라 설명을 해주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라며 "오늘 강의가 재미도 있었지만 부모로서 무엇이 현명한 건지, 올바른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를 새삼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영역의 분과 회의를 통해 △대개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성 관련 대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잘못된 성인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진행했다./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모든 산모로 확대 운영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산후운동 등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으로 장수군에 주소가 둔 산모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1주(5일)부터 5주(25일)까지 산모의 건강상태, 태아 유형, 아기의 출생순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출산 뒤 60일 이내에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은 보다 많은 산모가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발생 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